



광주극장 로비에 설치된 옛 영상기.



손으로 직접 그리는 간판은 광주극장만의 매력이다.



33년을 맞은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 걸린 악성 베토벤의 데드마스크.

'80살 광주극장' '베토벤' ... 옛이야기 흐르는 '세월의 보물창고'



올해 80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은 영화 상영 뿐 아니라 김구 선생의 시국 강연회, 리사이틀, 연극 공연 등이 열린 복합문화공간이었다. 1960년대 광주극장 모습. <광주극장 제공>

광주, 시간속을 걷다

<1> 프롤로그

부산으로 겨울 휴가를 간 건 여러가지 이유였다. 따뜻한 날씨와 푸른 바다, 영화, 그리고 삼진어묵이 있었다. 1950년, 영도구 봉래시장 판잣집에서 시작된 삼진어묵은 3대째 성업중이다. 부산 4개 지점 하루 매출만 7500만원에 달하는 명성답게 평일 오후였음에도 영도 본점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베이커리에서 빵을 고르듯, 집게와 쟁반을 들고 고로케 등 60여가지 종류의 어묵을 고르는 재미가 그만이다. 맛은 명불허전. 생각만으로 지금도 침이 고인다. 하루 2000명이 찾는 본점 2층에는 어묵 만들기 체험실과 소박한 전시관이 있다.

국제시장 인근 보수동 헌책방 골목도 찾았다. 책방 골목 역시 1950년,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한 부부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책 등을 판 게 시작이었다. 전성기 때 100여곳이 넘던 책방은 이제 50여곳 남짓이다. 골목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소박했다. 하지만 쓰러질 듯 위태롭게 책이 쌓여 있는 각 책방마다 이

추억 어린 빵집·시장·중국집 ...

광주 삶과 애환 간직한 과거

현재 거쳐 미래를 꿈꾸다

이야기 있었다. 옛스러운 모습 그대로인 곳도 있고,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책방도 눈에 띄었다. 골목 가파른 계단에 그려진 '어린왕자' 이야기를 따라 계단 끝까지 올랐다. 가을이면 보수동 책방 골목축제도 열린다.

두 곳 모두 시간이 머무는 듯, 또 흘러가는 곳이다. 세월의 흔적을 놓치지 않으면서, 요란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존재감을 키워가는 공간들이기도 하다. 문득 광주에도 이런 공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시리즈는 당초 올해 80년이 된 광주극장을 조명하는 단기로 기획됐다. 한데 광주의 삼진어묵, 광주의 보수동 책방골목을 들여다보고 광주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광주를 느릿느릿 걸으며 시간의 보석함을 하나씩 열어보면 관참치 않을까.

광주에도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와 새로운 감성, 유쾌한 이야기가 담긴 의미있는 공간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특특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젊은 기운도 넘쳐난다. 광주 일부 문화부가 지난 한해 지면에 소개했던 내용들이다.

10년 넘게 공을 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 9월이면 정식으로 문을 연다. 전당을 발신지 삼아 광주에 새로운 문화가 퍼져나갈 꿈꾸는 이들이 많다. 패기 넘치는 새로운 감성의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 광주의 삶과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면 그 꿈에 한발짝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시간 창고'탐험의 첫 주자로 올해 80살 생일을 맞는 광주극장의 역사를 따라가 본다. 1934년 첫삼을 뜬 광주극장은 1935년 10월 1일 문을 열었다.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된 날이었다. 이때 광주극장에서는 문예봉이 주연하고 흥난파가 음악을 맡은 '춘향전'과 '홍길동전'이 상연됐다. 김구 선생의 애국 강연회도 열렸다. 영화 상영 뿐 아니라 연극, 가수 리사이틀, 국극단 공연 등이 쉴새 없이 무대에 올랐다. 광주의 문화용광로였다. 지금은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삼거리 극장'의 전계수 감독이 광주를 찾았다. 지난 2007년 제작된 '삼거리 극장'은 낡고 오래된 극장에 유령들이 출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뮤지컬 영화다. '삼거리 극장'은 80년 세월이 담긴 광주극장과 안성맞춤인 영화다. 당시 영화를 찍었던 부산 삼일극장은 촬영 후 바로 문을 닫고 말았다. '광주극장 80년' 프레 행사 격으로 마련된 상영회를 위해 7년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전감독에게 관객들은 "영화 '삼거리극장'은 광주극장에서 정기적으로 상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룩키 호러 픽처쇼'가 뉴욕 극장에서 정기적으로 관객을 만나듯.

광주극장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올해 옛 안집을 개조한 '메종 드 시네마(영화의 집)'가 문을 연다. 광주극장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도 꾸준히 나온다. 광주극장의 80년 역사를 기록중인 다류감독도 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도 광주극장과 관련한 재료를 상반기 중 펴낼 예정이다. 광주극장에서 촬영한 영화도 개봉 대기중이다.

1982년 문을 연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베토벤에 얽힌 추억을 갖고 있던 이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고, 베토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건 특별한 의식이었다. 광주의 오랜 중국집도 찾아볼 계획이다. 추억이 서려 있는 빵집과 이야기가 있는 골목, 오랜만의 가족 사진을 촬영하던 사진관, 대인시장 터줏대감의 생생한 이야기도 담고 싶다. 익숙한 장소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궁금해 진다.

마음에 담고 싶은 글들로 가득한, 그래서 아껴 읽게 되는 문학평론가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에 실린 '기억과 장소'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저자가 직접 들은 소설가 흥성원의 이야기다.

개항 무렵 강성(江商)들에 관한 소설을 쓰기 위해 충청도 강나루를 답사하던 소설가는 마침내 마지막 강성들과 일하던 사공들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대하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늙은 사공들은 강에 땀을 쏟고 나루터가 없어지고 나니 거기서 일하던 기억도 사라지고 말았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던가" 한탄했다고 한다.

이렇듯 사라지고, 잊혀진 공간은 삶과 추억마저 앗아가 버린다.

글 말미에 황씨는 썰물일 때는 죽어 있는 마른풀처럼 보이지만, 밀려 온 바닷물에 다시 적시면 푸른 풀처럼 살아나는 갯바위의 이끼를 언급한다. 그는 칼럼을 쓰던 당시의 '서울시 디자인 프로젝트'가 '기억의 땅을 백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른 기억의 이끼를 싱싱한 풀로 일으켜 세우는 밑물이기' 바랬다.

지면을 통해 만나는 공간, 사람, 풍경들이 광주의 기억을 깨우는 밑물이기 바라며 시리즈를 시작한다. 광주의 눈 밝은 이, 광주를 추억하는 이들의 제보도 기다린다. 함께 광주의 시간 속을 걸어보자.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를 꿈꾸는 여정이 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1일째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 중식: 자유식 - 석식: 호텔식	2일째 -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원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레킹 -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포구~별천천연양대, 천연난대림지대 -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필)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3일째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필) -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 예코랜드-기차타고꽃자랑(자연원시림)숲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 포항사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행내외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 불포항사항 : 옵션(현지직필), 기차, 가이드비 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불버스 1인 ₩20,000원

*상기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상품은수중매커지입니다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산악회 별도모의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무박2일, 1박2일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등점), 여행자보험
회비: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1실), 주차비, 식사(중식2회, 석식회, 조식회), 여행자 보험
회비: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구 H.P : 010-3999-3226

황제 산악회 매일 첫째주 화요일 두일째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의사: 문봉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봉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